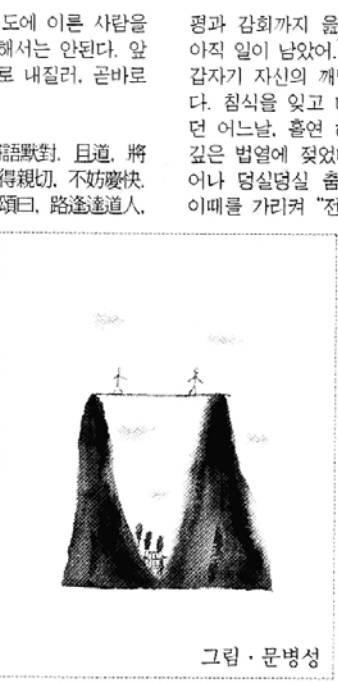


한형조 무문관 탐방

62 오조의 외나무다리



그림·문병성

* 오조가 말했다.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자, 말해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나 해가 말한다. "만약 여기서 절실하게 응대할 수 있다면 정말 윤택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모를지 모든 곳에 주의의 기운이다."
 * 송하여 가로되.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주먹으로 내칠라. 곧바로 나를 알아보게 해야 한다.
 路逢道人。不將語對。且道。將甚??對。無?對。若向者裏對得親切。不妨礙快。其或未然。也須一切處著眼。頌曰。路逢道人。不將語對。糲 糲面拳。直下會便會。
 이번 화두 역시 오조(五祖. ?~1104)의 것이다. 천년유혼 가운데 누가 진짜냐고 물어 학인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그 사람.
 참. 있었다. 지금 말하는 오조는 일찍이 6조 혜능에게 진리의 등불을 전해 선의 황금시대를 기약했던 5조 홍인(弘忍)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서 참담하게도 오조란 이름을 달고 있는가.
 해능과 더불어 선택은 남쪽을 내려갔다. 그러나 홍인이 살던 황매산은

을 시로 읊었다. "산등성이에 놀리는 밭 하나. 팔러 왔다가 늘 내가 사간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백운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 "요새 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오지. 다들 똑똑해. 나름대로 깨달은 바도 있고. 화두를 물어 보아도 적적 대답하고 비평과 감회까지 읊어대는네... 그런데 말이야. 아직 일이 남아어." 이 말에 법연이 흔들렸다. 갑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침식을 잊고 다시 문제를 붙들고 분투하던 어느날. 홀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느꼈고 깊은 법연에 젖었다. 곁에서 보던 백운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법연은 나중에 이때를 가리켜 "전신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 이후는 맑은 바람을 얻은 듯했다"고 술회했다.
 그의 제자에 불과원오(佛果圓悟)가 있다. 이 인물을 기억하시는지. 선의 최대 거사인 (백암록)의 틀을 잡은 사람이다. 그로부터 5세가 지나 (무문관)의 저자 무문해가 등장한다.
 화두의 맥락과 구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지금의 화두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서 오늘은 문자 속 몇군데를 짚어볼까 한다. 우선 逢道人이란 글자 그대로 "도에 닿아 있는

“여래장이란게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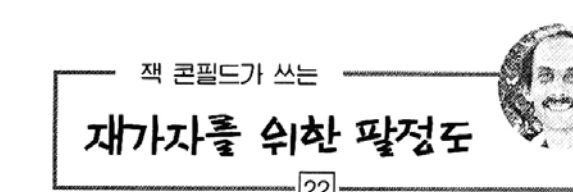
도에 이른 사람 만나면 나를 알아보게 해야

그 원연지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기려 이 산을 오조산이라 불렀다. 오조가 거하던 성소란 뜻이 담겨 있다. 그로부터 3~4백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말 이후 쇠퇴해진 선의 전통은 일제 계열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풍혈과 수산. 분양과 석상 등의 쟁쟁을 거쳐 양기가 종종을 진작시켰고. 그 여적(餘滴)으로 이국과 법연(法然)이라는 한 선장이 나타났다. 그는 마침 홍인의 발자취가 사라진 오조산에서 법을 쫓고. 그 인연으로 오조라는 이름을 얻었다.
 오조법연(五祖法然)은 지금의 사천성 북부인 면주(綿州)에서 태어났다. 35세에 집을 떠나 삭발하고 계를 받았다. 동기는 알 수 없다. 생사의 일대사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처음 유식과 중관을 배우다가 의문이 풀리지 않아 선의 문을 두들겼다. 부산(浮山法遠)이라는 노(老) 선지식이 젊은 백운(白雲守端)을 추천했다. "네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일제의 삼문봉(三頭峰)을 올린 송을 보건대 그러다 그곳에 틀림없다." 스승을 떠나 백운을 만난 그는, 사람마다 갖고 있다는 여의주에 대해 물어보았다. "모두가 여래를 갖추고 있는데 그 여래장이란게 무엇입니까." 백운은 소리를 질러 꾸짖었고. 그 힐난에 법연은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 기쁨

사람", 즉 "진리의 비밀을 체득한 사람"이란 뜻이었다. 將은 미래와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로 하려 한다"의 의미를 품고 있다. 且道에서의 도는 길이나 진리가 아니라 "말한다"는 통사로 쓰였다. 여기서는 명령형이다. 若向者裏對得親切에서 者裏는 그 당시의 속어이다.
 이 말이 현대 중국어의 這裏로 이어졌다. "여기, 이것"이라는 뜻이다. 得은 對라는 본동사를 지원하는 보조어로 완결적 위양상을 갖고 있다. 우리말의 "-해 버리다" 정도에 해당할까. 의미가 영 달라진 것은 親切이다. 지금은 "친절하다" 뜻. 영어의 kind나 friendly의 뜻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親이란 "몸에 다가드는", "실지경험에 입각한"의 뜻이다. "몸소"를 뜻하는 "친(親)히"에 이 뜻이 살아 있다. 切은 말 그대로 "절박한, 간절한"의 뜻이니 두 글자는 서로 어울려 "절실하다"는 뜻을 갖는다. 不妨은 본시 우리말의 무방(無妨)처럼 "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절을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해도 괜찮은"의 단계를 넘어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가 되는 것이다. 예도 전형적으로 구어적 표현. 조건절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라”

올바른 마음집중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면 훌륭한 결실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집중은 모든 갈망과 혐오와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어느 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팔정도의 일곱번째 수행은 '바른 마음집중'. 즉 정념(正念)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 호흡을 자각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호흡에 대한 의식을 훈련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식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순간의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는 산소, 수소, 질소 등 수많은 물질이 있는 기체의 바다이다. 이 기체들은 우리의 폐로 들어와 일부는 우리 몸의 작은 기관과 기포(氣胞)로 또 다른 일부는 폐에서 산소와 탄소 산화물로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있다. 주의 호흡에 고정시키겠다고 아무리 확고하게 마음을 먹어도 의식은 어느새 몰래 빠져나가 버린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되고 비틀거리는 것과 같다.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면 현 순간에 대한 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가능한 한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러한 자각을 잘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집중이다. 호흡은 우리가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속에서는 우리의 잠재된 힘이 있으며 관대함이 있다. 매 호흡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느껴보라. 내면에서 대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어떤 산모가 아이를 분만했는데, 그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산모의 분만을 도왔던 의사는 급히 영아용 인공호흡 장비를 가져와 아이의 입과 코에 연결했다. 분만실 창 밖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산모의 가족들도 아이의 가슴과 배를 유심히 살피며 아이의 생사(生死)를 가늠했다. 이때 산모의 가족들은, 비록 자신들의 호흡은 아니었지만, 호흡을 보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것은 주목하고 보는 것이다.
 호흡은 우리의 상태를 변화해 생체 리듬을 유지해 준다. 땅에 발을 붙이고 공기의 대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느낄 수 있는가? 무서운 광경과 마주친 사람들은 횡경막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계속 가슴만 부풀고 호흡은 우리의 육체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불교와 수학

66 세계수학과 불교

개화 이후 한국인이 받아들인 문화(수학)는 서양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세계의 수학, 크게는 문화가 동서로 만나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유럽에서 체계화된 내용이며 도입된 경로도 여러 가지이다. 명말청초(明末清初) 이래 서양 가톨릭 신부에 의해 중국에 소개된 것을 조선왕조시대의 사신들이 가져온 것과 직접 서양 선교사가 소개한 것, 또 명치유신 이후 서양인 교사에 의해 일본에 소개된 것 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럽인이 만들었다는 오해가 생겼다. 순박한 한국인은 신식 문화를 '양식'이라 부르며 특히 수학은 서양수학이라고 믿었고 무의식중에 서양 폴락스에 빠져들었다.
 수학에 관한 처음 기록은 약 5000년 전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접어들었을 때의 것이다. 그곳은 유럽 보다는 고대 중국의 황하와 양자강 유역,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바빌로니아에서 진술관에 배기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것이 남아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60진법은 중국의 갑자(甲子), 을해(乙亥)의 60간지와 같은 사상에서 나왔으며 오늘날도 시간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이집트에는 분수와 기하학의 지식이 실용화되어 있었다. 그 흐름을 이어받은 회람에서 논증적 기하학을 성립시킨 것이다. 회람 수학은 실용 중심으로 구성된 이집트, 바빌로니아의 수학에서 벗어나 플라톤 철학,

서양수학 뿌리는 동양 대수학·카오스 이론 불교사상에서 비롯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배경에 깔고 철학적으로 구성되었다. 그 전 형이 유클레이데스의 '원론'이며 그 밖에 아르키메데스의 수학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있다.
 그러나 회람명명의 계승자인 로마는 그처럼 화려했던 수학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회람수학은 불교, 이슬람 유역,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바빌로니아에서 진술관에 배기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발견이다. 0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당한 수로서 연산구조에 편입 시킴으로써 십진법의 자리잡기 기수법으로 이어졌다. 이 결과 수의 체계는 질서정연해졌고 0, 1, 2, ..., 9의 10개의 기호만으로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회람수학이 위대하다 해도 0이 없었음으로 수론(數論)이나 대수학(代數學)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7세기경 세계 수학의 중심은 인도에 있었다. 인도수학의 특성은 불교 사상 등과 혼화되면서 문학적 수법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특히 오늘날의 수학의 기초 부분을 명확한 형태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 무렵 당나라에서 삼장법사(三藏法師)와 같은 인도 구법(求法)승들이 나와서 여러 불전과 함께 수학지식이 통째로 들어왔다. 동양수학의 핵심명사는 이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 특히 인도수학의 최대의 업적은 불교의 공(空)사상에서 나온 '0'의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전·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지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란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 둘째 부(富: 부와 귀), 셋째 강녕(康: 편안함), 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 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술선식(松仙食)」은 「지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주(검은 까맣)와 감시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푸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 (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술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신선(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영양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 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인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이는 여래지신(지신) 자연건강종합식품시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 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사 소나무임영장주(秉壽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정(精)종합식품이 「술효소정액」과 「술선식」이다.

「술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새방·솔미다·송화기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울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삼·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늦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술강정종합식품이다.

「술선식」은 곡식류는 한 톨도 들어가지 않고 「술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울두 가지 원료에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山人)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의 탁도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술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상장, 열관계통의 질원분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술효소정액」과 「술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감사에서 적합평점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술효소정액」, 96.57796호, 「술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의회획득을 할 예정이다.

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특가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술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특가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대구여원